



힌즈페터 기자 헨틀리 선교사 피터슨 목사

5·18 광주 알린 '푸른 눈의 의인들' 국가유공자 되는 길 열리나

피우진 보훈처장, 힌즈페터 추모사업 적극 검토 지시 국회에선 외국인 의인 국립묘지 안장 등 법 개정 추진

힌즈페터 기자, 헨틀리 선교사, 피터슨 목사 등 1980년 5월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시민들을 도왔던 '푸른 눈의 의인(義人)'들이 있었기에 5·18민주화운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외국인이라는 사유로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국립 5·18민주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5·18에 대한 재조명에 나선데다, 영화 '택시운전사'가 1000만 관객 돌파 등 흥행을 이어가면서 5·18 의인들을 국가 유공자급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최근 관련부서에 광주 5·18기념재단과 협의해 독일기자 위르겐 힌즈페터 추모사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법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5·18 외국인 의인들이 국립묘지 안장 등 법적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맞물린 '택시운전사'라는 영화 한편이 5·18 참상을 취재

목적하고 해외에 알린 외국인 의인들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화 '택시운전사'의 역사적 주인공으로, 광주에 손톱과 머리칼라 등 유품 일부가 안장돼 있는 힌즈페터의 묘역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힌즈페터 참배객들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다시 인근 망월공원묘지로 발길을 되돌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힌즈페터는 국립묘지가 아닌 광주시가 운영하는 망월공원묘지(구묘역)에 안장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는 5·18추모관과 '민주의 문' 등에 힌즈페터 묘역으로 가는 길안내표시문까지 설치한 상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은 지난 2016년 3월 당시 힌즈페터의 유품(손톱·머리카락)은 국립 5·18민주묘지 내에 기념식수와 함께 안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5·18민주묘지관리소는 국가보

훈처와 협의한 끝에 "힌즈페터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며 고인의 유품은 국립묘지법에 의해 5·18민주묘지 경내 안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당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안장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국 5·18재단 등은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 평소 힌즈페터가 자주 들렀던 구묘역에 안장을 결정했다.

힌즈페터처럼 5·18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做) 찰스 헨틀리(한국명 허철선) 선교사도 지난 7월 세상을 떠나기 전 "유골의 절반을 광주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족들은 오는 9~10월 중 유골을 들고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안장할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의인 헌터리와 그 가족에 대해 결례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교사 묘역을 관리하는 호남신학대측이 현재까지 안장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광주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안장을 돕겠다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힌즈페터나 헨틀리 선교사처럼 5·18때 활약했던 외국인 의인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는 의견이 설득을 얻고 있다.

5·18유공자법에서는 적용대상자를 ▲5·18민주화운동 때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5·18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5·18보상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힌즈페터와 같이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사실상 유공자가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고서는 유공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힌즈페터나 헨틀리 선교사 등을 '공로자'로 지정해 예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찬대 의원은 힌즈페터가 구묘역에 안장된 경위와 이유를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면 법을 발의해서라도 공로가 있으면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의 관계자는 "현 5·18유공자 관련 법은 너무 엄격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유족들이 고인에 대한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 적용 오류에 전과기록 감박 광주지법 영터리 판결 잇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조문을 영통하게 적용하고, 기본적인 재판 배당조차 잘못하는 바람에 영터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27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아내(25)를 상습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 판결은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부분을 공소기각으로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의 아내를 공소 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만큼 이 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했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도 법원이 재판배당 자체를 잘못해 피고인이 재판을 6번이나 받아야 할 처지로 내몰린 사례도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한 단독 판사는 지난해 술에 취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수년간 남편을 상습 폭행해온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남편이 B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229일간 구속상태로 재판

을 받아온 B씨는 지난해 11월 풀려나 대법원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1심부터 다시 판단하라며 '과잉'이 속했다.

이유는 B씨의 죄목 중 하나인 상습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하며, 1심에서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선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가 맡아야 함에도 단독 판사가 맡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은 최근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데도, 도주 차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강제추행범 C(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금고형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금고형으로 바로잡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당사자에게 인생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관의 신중한 판결이 요구된다"면서 "다만 판사들이 야근 등을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개선책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왜곡 지만원씨

위자료 지급 불복 항소

5월단체도 항소 방침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한 지만원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이 5월 단체 등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18단체 등도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2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씨와 뉴스타운은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11월 5·18 관련 단체 5곳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른바 광수)으로 지목된 박남선(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63)씨 등 5·18 현장참여자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측과 상의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 알려줘 고마워요"...힌즈페터 추모 감사의 손편지 쓴 어린이들



지난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충효분교에서 열린 영화 '택시운전사'의 고 위르겐 힌즈페터 기사를 추모하는 '감사의 손편지 쓰기' 행사에 참여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어린이들이 손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혜비기자 choi@kwangju.co.kr

50대 주부가 잠자던 남편 성기 훼손

평소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0대 여성이 잠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27일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한 유기한 혐의(중상해)로 주부 A(5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밤 11시55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 자고 있던 남편 B(58)씨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남편

의 성기를 자신의 집 양면기에 버린 뒤 경찰과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남편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남편이 폭행과 폭언에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밤 부부가 크게 다투지 않았고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흥천 리어가 끌고다니며 모텔 TV부터 전선까지 마구잡이 절도

모텔에 비치된 TV에서부터 에어컨 동파이프, 전선, 공구 등을 다치는 대로 훔쳐 판매한 40대가 쇠고랑.

○2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3)씨는 지난 5월 29일 북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40만원 상당의 TV를 몰래 뜯어가는가 하면, 흥천 리어를 끌고 다니며 화물트럭 적재함 등에서 에어컨 동파이프, 전선, 공구 등 624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판매했다는 것.

○모텔 업주의 도난신고를 받고 CCTV분석과 지문, DNA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은 경찰은 "일정한 직업, 주거지도 없이 지내온 김씨는 흥천 물건을 옮기는 리어카까지도 훔쳐 사용했다. 지금까지 시인한 절도만 14건에 이른다"고 설명.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h2>부안 숙박시설(모텔)</h2>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34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2>수익성상가매매</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2>영광주택</h2>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2>법률경매</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2) 동구 금남로 총창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3) 북구 삼각동 상가건물 (4층) 병원, 요양병원 적합 감정가 189억 → 최저가 85억 4) 상무지구 치평동 지하상가 (교회, 기타적합)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5) 상무지구 치평동 4층 상가코너 (병원)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0억5천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7) 충남 흥성 상가건물 (주유소, 모텔, 식당종합건물) 감정가 55억 → 최저가 13억 8) 전주시 완산구 상가건물 (노후대비상가) 감정가 13억5천 → 최저가 9억4천 <p>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p> <p>경매교육</p> <p>매주월요일 개강</p>
---	--	--	--